86년의 빛나는 사람들

淨化特輯

저축의 힘이 큰사랑베풀게 한것

◇… 「이게 다 우리 손으로 벌어들인 재산이야」 한푼두…◇
◇… 푼 모아 이룬 1만여 평의 논을 뛰어다니며 그녀는…◇
◇… 소리쳤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러나 남…◇
◇… 편은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 양로원을 세우자…◇
◇… 고 주장했다. 〈가정주부 이영순씨〉 …◇

결혼 13주년을 맞던 1983년, 이영순씨(41세)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이 황금들판을 이룬 1만여 평의 논과 찻나무와 낙엽송 10만주가 불쑥불쑥 자라나는 30여 정보 임야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이제 고생은 끝이다」

『이게 다 우리 손으로 벌어들인 재산이야. 한푼두푼 모아 벌어들인 우리 땅이야』

그녀는 외쳐도 소리가 닿지않는 제 땅의 무한한 넓이가 감격스럽기만 했다. 「이제고생은 끝이다」 이렇게 다짐했다. 세 자식과 앞으로 펼쳐질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그날 밤 꿈에 부푼 이씨는 남편 권재필씨(45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여보, 우리는 그 산 없어도 살만하잖아. 우리 그 돈을 오갈 데 없는 노인네들을 위해 쓰면 어떻겠소』

권재필씨는 차분히, 그러나 오래전에 계획했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그녀는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에 말을잊었다.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번 재산인데…』 그녀는 이렇게 악착스럽게 돈을 모은 게 누구때문이었어요. 우리 식구 잘살아 보자고 한 것 아니에요』

결혼생활 13년 동안 남편처럼 단란한 신혼살림을 꾸려보지도 못했다. 아이 밴 몸으로 직장생활을 계속 한것도, 사달라는 것 많은 아이들의 손을 야멸차게 뿌리쳤던 것도 모두 훗날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사십대 아낙네가 되어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전쟁터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이씨는 스물다섯 되던 1970년에 결혼했다. 남편은 스물아홉의 「늙은 군인」. 결혼하겠다고 어영한 회사원이었는데 그 사이 남편에게 군입대 영장이 날아와 그녀는 결혼 첫해부터 독수공방을 감수해야 했다. 시댁 쪽에선 같이 지내자고 했지만 그녀는 독립할 것을 결심했다. 외출 나온 남편과 상의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병영 부근 광주 변두리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그녀는 마냥 놀수 없어 제과회사 경리사원으로 취업했다. 인문계학교(광주중앙여고) 출신이라 새로 주판·부기를 배우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달에두 번 외출 나오는 게 유일한 기다림이었다. 그러나 첫 세번째 남편은 몸마저 무너져 이를 배어 나온 남편은 말한 거운 어느날 충격적인 씨에게 홀연 사흘뒤 돌아버린 것이었다. 이 처음엔 설마 자원 마디를 던져놓고 홀연 병영으로 돌아가버 렸다. 당시 막바지로치 닫고 있어 모두들 가 기를 꺼려하던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도 사흘뒤에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이 은 아니었겠지만 지 나중에 알고 보니 처자가 있는 동료 병사가 집안걱정을 하는 것을 보고는 대신 자원했다는 것이다. 이 씨 자신도 이미 홀몸이었지만 야속하기 남편의결정이 그나마 엎질러진 이 간단 물이었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던 남편과 생이별하게 된 것이다. 시댁에서는 이까지 가진 몸으로 직장생활은 무리라면서 시집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지만 이씨는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한푼 두푼 모아 저축에 재미를붙여 매월보내오는 남편의 월급은 하고생활비는 수당과 시댁에서 얼마간 보내주는식량만으로 충당했다.

『그 당시 신념은 적금액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것였어요. 울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무더운 월남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을 애기아빠를 생각하며 라면과보리밥에 묻어 버렸읍니다』

결혼 13년 만에 2억원 모아

1973년, 그러니까 꼬박 3년이 흐른 후 남편은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고 뒤이어 제대를 했다. 회사에 사표를 낸 이씨는 남편의 손에 3천6백평의 논문서를 쥐어주었다. 『남편의 짝 놀란 표정을 보는 순간, 그간 고통이 사르르 녹아들더군요. 저와 딸아이 생활비로도 부족했으리란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씨는 남편과 스란히 저축을 하고생활비는 수당과 시댁에서 보내주는식량만으로 충당했다. 그 당시 이씨는 남편과 그녀의 월급은 고스스로 저축에 재미를붙여 매월보내오는 남편의 월급은 그녀의 월급과 시댁에서 보내주는 식량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1973년 제대한 남편과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 후 그는 악착같이 사십대까지 아무런 절약해 내핍생활은 여전히 복학한 시절이었지만 그는 사는 생활이라행 학교(전남영광) 서무 과)을 하게 되어 그 러나 해룡고등학교 직장생활 로 처음으로 터를 잡았다. 제대한 권재필씨는 바 영광에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때 그들은 이씨는 아무런 절약해 산을 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씨는 남편의 생활비를 줄이고 큰 재미가 저축은생 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저축은 또 없 이씨는 모여 되었다. 그런데 남편은 자고 하니 원망스럽기 만 하더군요』

권재필씨의 폭탄선언 있었던 1983년 6월 동안은 이들 부부에게 있었다. 물론 남편의 시련기 각도 나무랄 일이 못 되었지만 편안한 가정 과 세 아이를 훌륭히 키우고 싶은 사십대아 낙네의 소박한 꿈을이 가 없었다. 그래서 씨는 좀처럼 버릴 때 이혼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 부부 사이가 흔들리기도 했다. 그때 할머니에게 는 10여명 마련해 주고 생 활비도 대주고 있었다 그쪽의 성의를 표시했으니 「우리 식구 보자—는 한번 마음이었지만 설득은 잘살아 고집과 편히 남편의 고집요했다. 『이들 교육비는 무원 학자금으로 충당하니 걱정할 필요가없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주면 그만 아닌가』 이씨는 노후에 대한 미리 금이 내외도 걱정 연금이 나오니 없는데 뭐가 그리도 없는 원통한가』

결국 이씨는 남편의 큰마음 앞에 무릎을꿇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새로운 시작되었다.

세우고 갈등끝에 양로원 1984년

그녀는 3월 그 달을 처분하여 2억원 상당의전 답을 내에서 멸리 양광읍 야산을 떨어지지 않은 구입, 양 로원을 짓기 시작했다. 한번 시작한 일에 그 녀는 돈만 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직접 작업현장에 발벗고 나섰다. 남편은 직 장을 나가야 했고, 않아서 남을 부릴만큼재 원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다. 한여름 사들여 벼랑을 깎아정 지작업을 하고, 진입로 조성을 위해 논·밭주인을 일일이 찾아가설득하여 사들여야만 10여 구의 무덤 주인을 수소문, 때로는 서울까지 찾아가 이장비를쥐어주면서 옮기도록 했고, 주인 없는 무덤은 직접 뼈를 추스려 뒷산에 이장해야만 했다. 『그해 유달리 홍수가 있었고 이들 부부에게 동안은 있고난 후 6개월 되었지만 편안한 가정 키우고 싶은 사십대아 낙네의 소박한 꿈을이 되었다. 그런데 그후 첫 맞선장소에서 이들은다 시 만나게 되었고 결 혼을 약속하게 된 것 이다.

『평소에도 남편은 조 금만 여유가 생기면남 을 돕고 살겠다는말 도 자주 했어요. 야학 도 그렇고, 동료 대신 월남을 간것도, 또 양 로원 하기 전에 할머 니들을 위해 집을 사 양로원도… 그 큰 사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우리 가정만 의 행복」에 대한 미 련은 떨쳐 버렸지만 그 래도 양로원 일에 쫓 겨 제대로 돌보지도못 하는 큰아들 춘호(13세)·춘배(14세)에게 막내 이씨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아 이들도 부모를 이해하여 줄 것이다.

〈월간 2000년지에서 발췌〉

自然生採取(연재)

자원=(紫苑)

○과 명=국화과
○○속 명=댕말
○약용부=뿌리

1、기본…우리나라고 산지대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이다.

2、생장적지…고산지대나 한냉한 곳이 생산적지이다.

3、특징…키는 2m 정도로 성장하고 봄에 자랄때는 뿌리에서 긴 둥근꼴의 잎이 모여나 오며 자람에 따라 줄기의 잎은 작은것이어 겨 붙는다. 잎줄레는고 르지 않은 톱니같은형이며 끝은 뾰족하다. 꽃은 8~9월에 자색 의 국화꽃 처럼 핀다. 꽃이 피여있는 기간이 무척 길고 또 꽃이아이 름다워서 정원에도 많이 재배한다. 10월경에 는 깨알만한 둥근꼴의 검붉은 솜같은 날개붙은 씨앗이 많이 늘고 긴 리를 채취·늦가을에뿌 리의 주의하기 때 수확이 줄어진다.

4、채종…늦가을 씨 앗을 채집한다.

5、파종…봄에 씨앗 을 파종한다.

6、채취…늦가을에뿌 리를 캐낸다. 뿌리가 관계로 캐낼 수 없으면뿌 리가 부족했으리란

자초=(紫草)

○과 명=자초과
○○속 명=지치
○약용부=뿌리

1、기본…옛날에는 산과 들에 많이 자생하는 식물이라 채취하기 는 쉽웠으나 지금은 깊은 산중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어진 식물이다.

2、생장적지…알맞는 습도가 유지되는 유기질이 퇴적해서 썩은낙엽수 아래가 가장 좋다.

3、특징…키가 40~80cm 정도로 자라는 풀로서 털이 많이 붙어있는 전체에 거친 흰 털이 많이 붙은 뿌리부분은 갈색이다. 봄에 묵은 포기에서 3~4개의 줄기가 나와서 그 위부분은 넓어지는 라져서 위가 잎은 피침형으로 호생하며 잎 형태를 이룬다. 줄기는 있고 풀전체에 모두 세로로서 있고 흰빛 의 털이 많이 붙어있다. 줄기는 담록색 풀 잎은 짙은 녹색으로 고 5~6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7~8월까지 계속된다. 꽃은 작고 흰 빛으로 거 볼 수가 없고 뿌리는 질은 자흑색을 나타내며 여러해 자란것 일 수록 빛이 짙다. 뿌 리의 모양은 방추형으로 하나로 굵게 자란다. 꽃이지면 딱딱하고 흰빛의 씨앗이 생긴다.

4、채종…가을이 끝날 무렵에 씨앗을 채 집한다.

5、파종…씨앗을 3~4월경에 흙에 묻어 저장하여 두었던것 을 파종하여 10cm 이상 자랐을 때에는 뿌리부분에 낙엽이나 마른풀 등을 깔아 주어야 한다.

6、채취…2~3년이 상 생장한 뿌리만을 캐내어야 한다. 캐는 시기는 지상부가 마른후 적기이다.

7、조제…캐낸 뿌리 를 현재는 물에 씻지 않고 흙만 털어버리고 행볕에 말린다. 앞으로는 캐는 즉시 씻어서 말려야 할 것이다.

8、이용…해열제로 사용하고 또는 종창, 동상, 습진 등의 연고 제조에 로 쓰인다.